

# 건스미스 비트 시나리오

## # 프롤로그 (총포상 안, 오전 8시)

1980년 미국, FBI와 마피아간의 전쟁이 한창중인 시기. 뉴저지의 에즈베리 파크 앞 작은 총포상이 개업하게 된다. 총포상을 열게 된 당신은 뉴욕의 거물 건스미스 J. 홀먼의 가게에서 5년여간의 보조 끝에 인정을 받은 엘리트 건스미스, 맥키넨 스프링스틴이다. 당신은 스승님인 J. 홀먼의 그림자 아래서 벗어나기 위해 뉴욕에 가게를 차리지 않고 고향인 뉴저지로 돌아왔다. 그러한 당신의 목표는 스승님을 뛰어넘는 훌륭한 거물 건스미스가 되는 것이다. 역사적인 개업 첫 날, 당신은 창업신조를 적어내리기 시작한다.

## # Scene 1-1 ‘나’의 신조 (총포상 안, 오전 8시 50분)

당신이 중요시하는 것은?	
돈 ▶ # 1-1-A로 간다.	신의 ▶ #1-1-B로 간다.

### # 1-1-A 나는 돈이 좋아! 돈이 최고야!

아무리 생각해도, 총포상이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나 돈이었다. 이런 흥흥한 시대에는 총기 하나쯤은 구비해둬야 하니깐. 나는 스스로를 지키는 도구를 팔고, 상대방은 그로서 안전을 얻으니 상부상조 아니겠어? 그게 어느 곳에 쓰이던간에 내가 알 바는 아니지.

### # 1-1-B 거래는 사람과 사람간의 신의가 제일중요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판매하는 ‘총’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이다. 신원이 보장된 사람에게만 파는 것이 옳겠지. 스승님께 배운 가르침을 잊지 말자.

## # Scene 1-2 첫번째 손님 (총포상 안, 오전 9시)

한참을 생각하고 적어내린 창업신조를 벽에 거니 어느덧 오픈시간이 다가왔다.

딸랑 -

“어서오세요, 손님!”

드디어 첫번째 손님이다! 방문한 손님은...	
돈을 선택했을 경우 ▶ 보르노이 패밀리 조직원이 방문한다. #1-2-A로 간다.	신의를 선택했을 경우 ▶ FBI 조직 범죄 전담반의 로이가 방문한다. #1-2-B로 간다.

## # 1-2-A 위험한 접근

“...”

첫번째 손님인 남자는 휘파람을 불면서 휘적휘적 가게 안을 훑어보았다. 깔끔하게 정리해둔 핸드건 코너로 가, 글록17을 우악스럽게 잡아빼 매대에 던져놓았다.

쿵

“손님! 이게 뭐하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자는 품에서 돌돌 말아 고무줄로 묶어놓은 달러 뭉치를 내게로 던졌다.

“실력 좀 볼까?”

수상한 손님의 제의가 들어왔다.	
거절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다... ▶ <b>총기 손질 리듬게임 튜토리얼 진행</b> 이후 #1-2-A-a로 간다.	제의를 받지 않는다 ▶ #1-2-A-b로 간다.

## # 1-2-A-a 첫번째 거래

“너, 마음에 들었다. 오후 11시, 브래들리 코브에서 기다릴테니 생각해봐라고.”

남자는 자신의 말만 끝낸 뒤 뒤돌아 가게를 나가버렸다.

“뭐야? 정말... 어이없네.”

다시 글록을 돌려놓으려는 차에, 달러 뭉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음~ 그래도 첫날인데 수완이 좋네 ♪ — 그리고... 11시 브래들리 코브라고 했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찰나에, 차임벨이 울렸다.

▶ #1-2-B로 간다.

## # 1-2-A-b 돈이 문제가 아냐

“원지는 몰라도, 다시 가져가세요.”

달러뭉치를 다시 돌려주며 말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이런 뒤통수가 구린 제안은 별로다. 나는 사리분별을 하는 ATM이라고?

“이런 제안, 흔하게 받을 수 있는게 아닐텐데?”

남자는 의외라든듯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손가락으로 툭툭, 달려 뭉치를 건드리며 고민하다 이내 주머니에 있던 영수증에 무언가를 적어내렸다.

“그래도 한 번 생각해봐, 나쁜 제안은 아니니까.”

<오후 11시, 브래들리 코브>

남자는 대꾸 할 틈도 주지 않고 훌쩍 가게를 떠나버렸다.

‘뭐야, 진짜...’

투덜대며 글록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던 찰나에, 차임벨이 울렸다.

▶ #1-2-B로 간다.

## # 1-2-B FBI, Open up!

“안녕하십니까—”

손님이다! 인사를 건넌 남자는 주위를 경계하며 들어왔다. 그것도 잠시, 가게 문을 조심스레 닫고 곧장 내게 성큼성큼 걸어왔다.

“찾으시는 물건 있으신가요?”

“... FBI 조직 범죄 전담반의 로이 콜린입니다. 최근 수상한 제의를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남자는 다짜고짜 FBI 아이디 카드를 들이밀며 말했다.

수상한 제의를 받았나?		
제의를 받지 않았다. ▶ #1-2-B-a로 간다.	제의를 받았다. ▶ #1-2-B-b로 간다.	제의를 비밀로 한다. ▶ #1-2-B-c로 간다.

## # 1-2-B-a 내 미들네임은 ‘클린’이지

“아뇨, 저는 그런 제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거 다행이군요. 최근 모 마피아 조직이 불법 총기개조를 하기 위해 건스미스들에게 접근한다는 첩보를 받았습시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얼굴을 쓸어내렸다. 긴장이 풀린걸까? 표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그런가요? 그거 큰일이네요. 어떤 일을 벌일지 상상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최근 마피아간의 총격전으로 목숨을 잃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요.”

“하하, 그래서 총기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떠오르고 있죠? 제 밥줄이 끊기면 안된다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요.”

“뭐, 그럴죠. 총이란건 ‘나’를 보호하는 도구이자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혹시 뉴욕 ‘마제스티 파이어암즈’ 에 방문 해 보셨을까요?”

“당연하죠. 일단 저도 총기 마니아다 보니까요. J. 홀먼씨의 능력을 높게 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J.홀먼씨에게 연수를 받은 제자거든요. 연수가 끝나자마자 차린 가게랍니다.”

“오, 그럼 실력이 출중하시겠군요?”

“홀먼씨 밑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법이니까요. 실력은 보증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도 손질을 맡겨봐도 될까요? 최근 홀먼씨가 가게를 닫으셔서 제 베레타를 돌봐줄 사람이 없던 참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 ▶ 총기 손질 리듬게임 튜토리얼 진행

### # 1-2-B-b 받긴 받았는데...

“네, 제의를 받았습시다. 거절했지만 끈질기더군요.”

“... 역시 첩보가 맞았군요. 협박을 받으셨습니까?”

“아뇨, 대신 이런 쪽지를 남기고 가더군요.”

잠시 옆으로 치워두었던 영수증을 꺼내 남자에게 보여주었다.

<오후 11시, 브래들리 코브>

“어떤 거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실까 싶어 드립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제안을 받는 건스미스들이 많아 골치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제안을 하는 자들이 마피아들일까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아무래도 최근에 마피아 간의 총격전이 많기도 했으니까요.”

남자는 무언가를 잠시 생각하는 듯 마른세수를 했다. 많이 피곤해보이는데...

“...이것저것 신경쓰실게 많으시군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하하, 티가 나나요? 사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커피도 한 잔 하시는 김에... 그 친구, 손질 한 번 해드릴까요? 서비스입니다.”

“...아, 이 베레타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사정이 있어서 최근 손질을 못하긴 했네요. 말해주신다면 감사히...”

“하하, 제가 개인적으로 베레타92를 좋아하거든요. 맡겨주세요.”

#### ▶ 총기 손질 리듬게임 튜토리얼 진행

### # 1-2-B-c 내 미들네임은 ‘비밀’이다

“아뇨, 받은적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업 첫날이다 보니까요. 손님이 첫 손님이십니다.”

“...그렇군요.”

들켰나? 의심스러운 눈빛이다. 안주머니에 넣어둔 달려뭉치가 신경쓰이기 시작한다.

“...문제가 있을까요?”

“아뇨, 아닙니다. 최근 모 마피아 조직이 인근 지역의 건스미스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서요. 조심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필요하신 것이라도 있을까요?”

“아뇨, 용건은 이게 다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로이 콜린이라는 남자는 나를 한 번 훑어보고는 돌아갔다.

‘휴~!! 십년감수 했네!’

묘한 긴장감에 손은 땀으로 흥건했다.

‘그나저나, 11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

시계는 겨우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었다.

수상한 거래 현장에...	
<p>간다</p> <p>▶ #1-3-A로 간다.</p>	<p>가지 않는다</p> <p>▶ #1-3-B로 간다.</p>

## # Scene 1-3 수상한 거래

### # 1-3-A 인생 한 방! (브래들리 코브, 오후 11시)

아무래도 인생은 한 방이다. 고민을 하는 것은 내 지갑에 들어올 돈이 늦게 들어오게 되는 것 뿐! 이렇게 쉽고 간편한 방법이 있었던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익숙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이, 진짜 왔네?”

“아무래도, 거절할 수는 없더라고”

“그래, 거절하기엔 꽤나 째짜하니까.”

“그나저나, 나한테 뭘 제안할 셈이지?”

“워워, 진정하라고. 본론부터 들어가면 재미 없지.”

남자는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해보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서류케이스를 내밀었다.

“이건 착수금이다. 서운하지는 않을 정도일거다.”

남자가 건넨 가방엔 일전에 받았던 돈의 몇배나 되는 달러가 들어있었다. 이거... 괜찮은데?

“어떤걸 하면 되는거지?”

“싸고 살상력 높은 총기 100정을 일주일 뒤까지 납품해. 단, 추적되지 않는 제품으로.”

“... 그냥 값싼 총에 일련번호를 지우고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시중에 판매하는 총도 이정도 돈이면 아쉽지 않을텐데.”

“이건 단순 테스트일 뿐이니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할텐가 말텐가?”

“딜.”

“좋아, 얘기가 빠르군.”

벌써부터 손에 피가 묻은 느낌이지만,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으니까.

### # 1-3-A 인생 길다~ (집, 오후 11시)

아무래도 인생은 길고 가늘게 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 루트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수상한 남자와의 거래로 내 커리어를 망칠 수 없지. 로이... 콜린이라는 형사에겐 미안하지만, FBI와도 엮이기는 싫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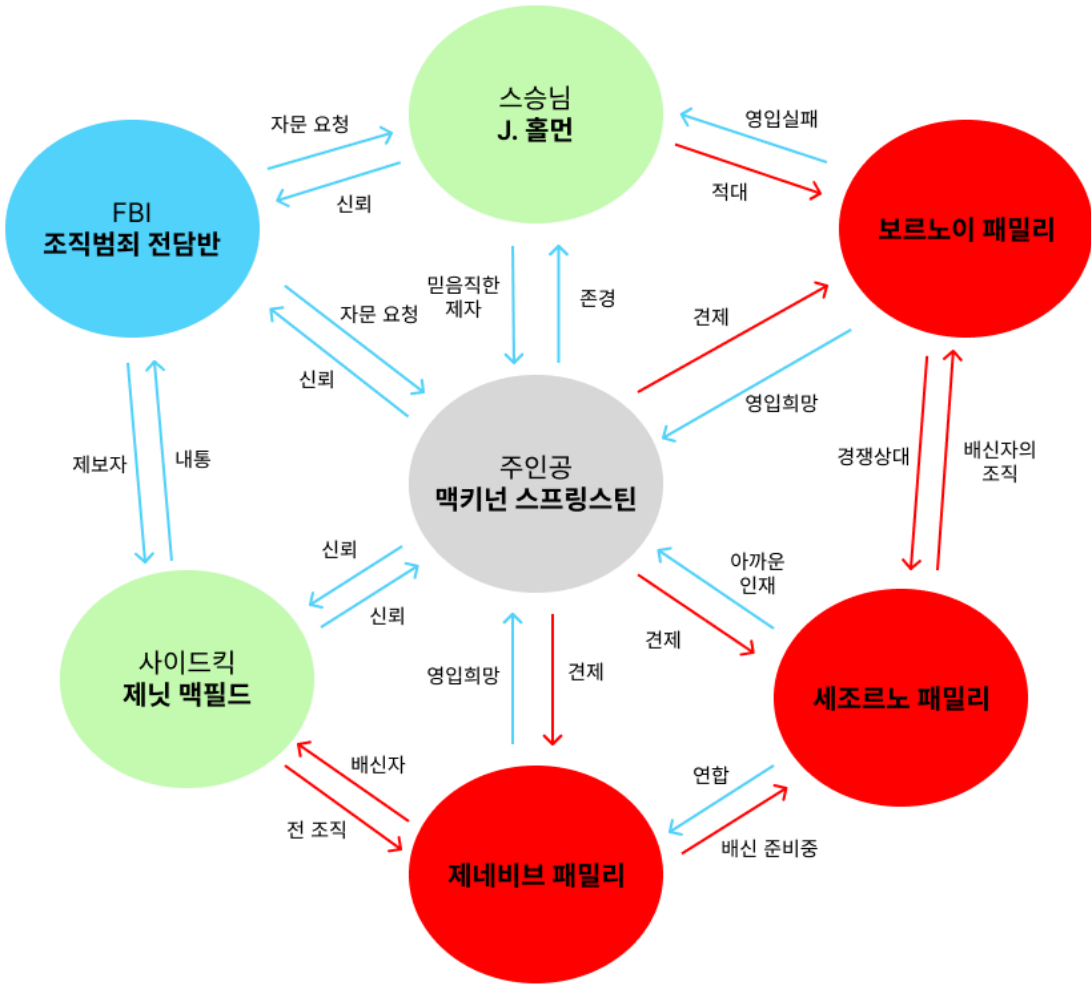
“아— 귀찮아!”

생각을 멈추기로 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래도 총기 손질만 하고 이정도 돈이라니! 한 탕 하는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섞인다. 개업 첫 날부터 이상한 일도 많네. 로이니 뭐시기니, 이상한 남자니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다음날로 이동]

# 갈등구조

## FBI루트





## 마피아 루트

